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2, Vol. 23, No. 2, 167-182
https://doi.org/10.15703/kjc.23.2.202204.167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박경희[1] · 조한익[2†]

[1]한양대학교 러닝사이언스학과 박사과정, [2]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도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집단응집력,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은 각각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군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 제한점 등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군 병사,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한익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 Tel: 02-2220-1102 / E-mail: 1990434@hanyang.ac.kr

서 론

군 생활 적응이란 병사들이 자신의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와 직위에 만족하면서 군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Stouffer, 1949). 한국군의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발적 의지에 따른 복무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이행을 위해 군 복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징병제도는 군대에서의 직무에 대한 동기 저하와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사들의 군 복무 시기인 20세 전·초반은 발달 단계상 부모 또는 통제된 환경으로부터 독립이나 이탈을 시도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자,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중요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시기이다(Erikson, 1950). 환경 측면으로는 한국 사회의 핵가족화 추세로 입대 전 부모와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양식을 지닌 채 군대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평등과 권위주의, 자유와 통제, 합리성의 추구와 명령에 대한 복종과 같은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 차이의 괴리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처럼 병사들이 입대 전 경험한 사회 조직과는 차이를 보이는 군대의 위계적 조직 문화, 외부와 단절된 환경으로 인한 고립감, 동료 간의 가치관 차이 등에 따른 심적 갈등과 이에 따라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 문제,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종종 군기 사고, 군무 이탈 또는 자살과 같은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구승신, 2013). 따라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은 이들의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성과와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요인들은 개인 내적·외적 측면과 부대 내·외 환경 측면으로 구분되거나(김옥란, 김완일, 2014),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위험 또는 보호 요인으로 구분된 후 개인적, 군대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최혜란, 박숙희, 2009).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4개의 하위분류로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변인의 영향력을 조사한 메타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보호 변인에는 공동체 의식과 탄력성이, 개인 내적 위험 요인에는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취약성이, 개인 외적 보호 요인에는 조직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가, 개인 외적 위험요인에는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조직문화가 각각 높은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방상옥, 임신일, 2021).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위험 요인인 심리적 취약성 중 하나인 사회불안을 상정하였다.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누구라도 긴장을 경험하고,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여 과제 수행과 성과에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Heimberg & Becker, 2002),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사회적 상황의 환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유지에 뚜렷한 두려움 또는 불안을 경험하게 하고,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보이는 증상을 나타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정신 장애 발병률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유병률은 평균 5～12%로(Shields, 2004; Grant et al., 2005; Kessler & Ronald, 2005; Stein, 2006), 사회불안장애는 우울(16.6%), 알코올 남용(13.2%), 특정 공포(12.5%)에 이어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Stein, 2006). 사회불안은 우울의 주된 위험 요인이고, 다른 정신장애와 동반 없이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높이고

(Stein & Gorman, 2001; Mather et al., 2010), 학교 및 직장에서의 적응 수준을 낮춰서(Clark & Wells, 1995), 자퇴, 낮은 취업률과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nappe et al., 2012; Hambrick et al., 2003).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군 구성원들의 사회불안은 일반인의 사회불안 발생 원인과 상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군 구성원의 사회불안은 수줍음, 부모의 양육 태도(Iancu et al., 2006)와 같은 생물학적, 심리 · 사회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고(Ollendick & Hirshfeld-Beckker, 2002), 부대원들과 생활하며 임무 수행이나 발언 시 주목 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하며, 우울, 알코올 남용을 예측하였다. 더불어 군 구성원의 사회불안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원인 또는 결과 변인으로 나타났다(Mather et al., 2010). 군 구성원의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과 캐나다 군 구성원의 사회불안 생애 유병률과 연간 발병률은 각각 6.22%, 3.34% 및 8.2%, 3.2%로, 이는 해당 국가 일반인들의 사회불안 발생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고, 국가와 관계없이 군 구성원의 사회불안의 발생률이 다른 정신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Wang et al., 2014; Mather et al., 2010). Wa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21.2%에 달하는 중국 군 구성원들은 연중 1회 이상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두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군 조직의 엄격한 규율과 문화가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한국군 병사들의 사회불안 발병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병제로 복무하는 중국 군인들의 사회불안 발병률을 감안한다면(Wang et al., 2014) 징병제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의 사회불안 발병률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군 병사가 사회불안을 경험할 경우 입대 전보다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로 상정하였다.

군 조직은 일반 사회 집단과는 차별화된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특히 일차적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집단이다(서현봉, 1993). 즉, 군 구성원들은 입대 이전 속했던 집단과의 관계 단절, 그들이 속한 군부대의 일차 집단에 대한 의지, 주어진 임무 달성을 위한 상호 협동, 개인의 기능적 독립성 유지라는 군대의 특수성과 제도적 상황에 맞추어 행위 하도록 요구된다(Baum, 1952). 이러한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군은 다른 그 어떠한 조직보다 집단에 대한 가치와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긴다(최혜란, 박숙희, 2009).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예측하는 부대 환경 요인에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강한 유대감, 직무 만족, 직무 성과 등이 있고, 구성원들과의 긍정적 신뢰 관계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된다(최혜란, 박숙희, 2009; 엄덕희, 2009). 실제 육군본부에서 조사한 군 발생 사고의 원인 중 따돌림, 집단 괴롭힘, 폭행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육군본부, 2007), 대인관계 관련 변인은 군 병사의 적응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어(최혜란, 박숙희, 2009), 군 구성원 간 대인관계 및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군 집단응집력을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 개념으로 집단응집력이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집단에 머물러 있으려는 힘이나 매력으로 정의된다(Festinger, 1950). 집단응집력은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해 가지는 흥미와 만족도를 높여주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촉진해서 집단의 사기를 높여주고(Kirke, 2010; Yalom, 1985), 높은

집단응집력은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해준다(Williams & Hackers, 1982).

한편,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응집되는 수평적 집단응집력, 상관과의 관계에서 응집되는 수직적 집단응집력의 총체인(Griffith, 1988; Siebold & Kelly, 1988) 군 집단응집력은 군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관계, 친밀감, 결속을 통해서 군 전투 효율성과 성과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Ahronson et al., 2007). 군 집단응집력은 군 생활 적응의 구성요소인(Stouffer, 1949; 구승신, 2005) 스트레스 감소, 임무 수행 동기 및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William et al., 2016; Jones et al., 2012; Le foll, 2019), 군 복무의 의무 여부, 사회적 인식, 구성원들의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집단응집력의 크기와 결과 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Henderson, 1985; Janowitz & Little, 1965),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군 병사의 군 집단응집력이 군 생활 적응에 통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을 동시에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지만, 군 집단응집력이 함께 연구되는 변인에 따라 매개 또는 조절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Zaccaro, 1991), 변인의 다차원적 특성상 군 구성원 간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맥락으로 군 집단응집력을 정의한 선행 연구(Manning & Fullerton, 1988)를 기반으로 군 집단응집력을 매개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불안 증상을 가지는 개인은 부정적인 자기평가,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 인해(Patterson & Ritts, 1997) 타인의 지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에 대한 회피 반응을 나타내어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과 유지에 제한성을 나타낸다(Calsyn et al., 2005; Clark & Wells, 1995).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병사들 역시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부대원과의 상호작용과 지지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군 집단응집력 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평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더불어 사회불안과 적응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삶의 만족도의 관계(정문경, 오은주, 2015) 및 병사의 부정적 정서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원예은, 2019) 결과를 바탕으로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종합해보면, 심리·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후기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들에게 집단주의와 위계성을 중시하는 군 생활의 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불안을 가지는 군 병사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염려 및 외부 자극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편향 등으로 인해서 부대원들과 제한된 상호작용을 하고, 이에 따라 소속감, 직무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을 공고히 하지 못하여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같은 내적 변인 및 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군 집단응집력을 군 병사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상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병사의 사회불안이 군 집단응집력을 매개로하여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병사의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이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K 도에 소재한 군부대 남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2020년 1월 ~ 2월 수집된 26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34부를 제외한 23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 또는 거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 설문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22세 이상은 88명(38.1%), 만 21세 77명(33.3%), 만 20세 64명(27.7%), 만 19세 이하 2명(0.9%) 순으로 많았다. 참여자 계급은 상병과 일병이 86명(37.2%)으로 동일하였고, 다음으로 병장 57명(24.7%)과 이병 2명 (0.9%)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중 173명(74.9%), 고졸 이하 45명(19.5%), 대학 졸업 이상 13명(5.7%)이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본 연구에서 사용된 SIAS는 Mattick과 Clarke (1998)가 제작한 것으로, 타인과의 대화, 낯선 이들과 어울리기 등과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 반응 등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해서 연구한 19개 문항에 최병휘(2006)가 번안한 1문항을 추가하여 총 20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의 Likert 점수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개 문항(5번, 9번 11번)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환산되었고, 높은 점수로 채점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Mattick과 Clarke (1998)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96이다.

군 집단응집력 척도

군 집단응집력 측정을 위해서 Salo와 Siebold (2008)가 개발한 동료 집단응집력 척도를 임정인 등(2016)이 한국군 현실에 부합되게 번안한 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병사들의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우리 부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대원들은 내가 군 복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다.',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4점)'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정인 등(2016)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값은 .94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 척도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측정을 위해서 Stouffer (1949)가 제작한 척도를 한국군 상황에 맞게 신태수(1981)가 번안 및 수정한 26개의 항목 중에서 김정은 연구(2013)에서 적용된 20개 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척도는 임무 수행의 의지(4문항), 심신 상태(3문항), 직책 및 직무 만족(5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8문항) 등의 4개의 하위요인,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 매우 그렇다 (4점)'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연구(2013)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이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고, 구체적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매개분석에서 공변량으로 투입된 연령, 계급, 학력 및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 보급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 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를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의 연구 모형 분석 이전에 기초적인 자료인 기술 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주요 변인들인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확인한 결과(Kline, 2004: 정규성 가정- 왜도의 절댓값 < 3.0, 첨도의 절댓값 < 7.0),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연령, 계급, 학력 중 연령과 계급(r=.37, p<.01), 연령과 학력(r=.21, p<.01)은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이들 변인들과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1)

	1.	2	3.	4.	5.	6.
1. Social Anxiety	-					
2. Military Group Cohesion	-.55***	-				
3. Military Life Adaptation	-.49***	.71***	-			
4. Age	.01	-.02	-.07	-		
5. Rank	.05	-.10	-.06	.37**	-	
6. Educational Background	.01	-.02	-.05	.21**	-.05	-
Mean	1.45	2.70	2.50	2.09	1.87	1.87
Standard Deviation	0.89	0.80	0.76	0.81	0.78	0.48
Skewness	0.27	-0.14	-0.14	-0.18	0.24	-0.36
Kurtosis	-0.86	-0.44	-0.12	-1.47	-1.32	0.88

** p <.01, *** p <.001.

군 생활 적응의 상관 관계에서 사회불안은 군 집단응집력(r=-.55, p<.001), 군 생활 적응(r=-.49, p<.001)과 부적인 관계를, 군 집단응집력은 군 생활 적응(r=.71, p<.001)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이들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 분석 이전 각 변수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는데,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최소 .49에서 최대 .7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인 *r의 값이* .80(이종환, 2008)이하이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의 VIF는 1.45로, 10 미만, 공차 한계는 .69로 .10 이상, 결정계수는 11.46으로 1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사회불안이 군 집단응집력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 모형은 PROCESS Macro의 4번으로 검증되었고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이때,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최종 학력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 선행 연구 결과(박선하, 1997)를 고려하여, 연령, 계급, 최종 학력 변인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검증 결과 1 단계에서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 (F=12.653, p<.001)하였다. 2 단계에서도 사회불안이 군 집단응집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17.257, p<.001). 3 단계에서 사회불안과 군 집단응집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두 변인은 군 생활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31.203, p<.001), 3단계 사회불안의 β 값이 -.489에서 -.147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집단응집력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Figure 1).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PROCESS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매개효과 계수는 -.291이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ULCI)과 상한 값(LLCI) 사이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하다(Preacher & Hayes, 2004). 하한 값(LLCI)과 상한 값(ULCI)이 -.397～-.201로 나타났고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군 병사들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고, 연구 대상은 K도 지역의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를 토대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병사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아래의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각 변인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 사회불안과 군 집단응집력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군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는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임진, 2015; 이찬미, 2021)와 일치한다. 사회불안과 군 집단응집력의 부적 관계는 집단응집력과 개인 내적 · 외적 변인의 관계를 연구한 Hoyle과 Crawford(1994)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군 집단응집력과 군 생

Table 2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Group Cohe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Military Life Adaptation

	Indep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B*	*SE*	*t*	*LLCI*	*ULCI*
1	(Constant)	Military Life Adaptation		64.588	3.243	19.915	58.197	70.979
	Age		-0.040	-0.740	1.221	-0.606	-3.147	1.666
	Rank=Corporal		-0.033	-1.039	2.165	-0.480	-5.304	3.227
	Rank =Sergeant		-0.015	-0.541	2.451	-0.221	-5.370	4.288
	EB=College student		0.000	0.000	2.266	0.000	-4.465	4.466
	EB=More than college graduate		-0.075	-4.932	4.444	-1.110	-13.689	3.825
	Social Anxiety		**-0.489**	**-0.416**	**0.050**	**-8.333*****	**-0.514**	**-0.317**
2	(Constant)	Military Group Cohesion		31.288	1.487	21.045	28.358	34.217
	Age		0.030	0.269	0.560	0.480	-0.835	1.372
	Rank=Corporal		-0.106	-1.595	0.992	-1.607	-3.550	0.361
	Rank =Sergeant		-0.090	-1.516	1.123	-1.350	-3.730	0.697
	EB=College student		-0.005	-0.080	1.039	-0.077	-2.127	1.967
	EB=More than college graduate		-0.043	-1.350	2.037	-0.663	-5.364	2.665
	Social Anxiety		**-0.540**	**-0.220**	**0.023**	**-9.616*****	**-0.265**	**-0.175**
3	(Constant)	Military Life Adaptation		23.241	4.462	5.209	14.448	32.035
	Age		-0.059	-1.095	0.974	-1.124	-3.015	0.825
	Rank=Corporal		0.034	1.069	1.736	0.616	-2.352	4.490
	Rank =Sergeant		0.042	1.463	1.962	0.746	-2.403	5.329
	EB=College student		0.003	0.106	1.807	0.059	-3.454	3.667
	EB=More than college graduate		-0.048	-3.149	3.547	-0.888	-10.138	3.841
	Social Anxiety		**-0.147**	**-0.125**	**0.047**	**-2.646****	**-0.218**	**-0.032**
	Group Cohesion		**0.633**	**1.322**	**0.116**	**11.370*****	**1.093**	**1.551**

** *p*<.01, *** *p*<.001. *Rank(0= less than Private), EB(0=high school graduate), EB: Educational Background*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Group Cohesion between Social Anxiety and Military Life Adap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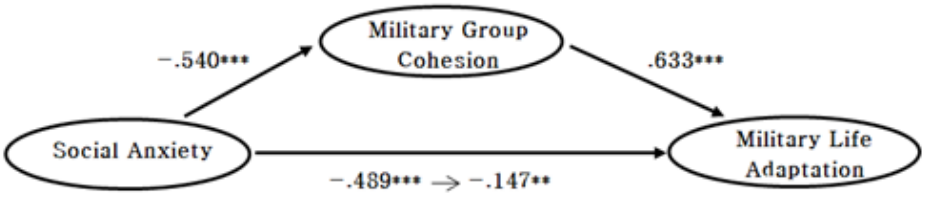


Table 3

Result of bootstrapping of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Group Cohesion

Variable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Boot ULCI*
Military Group Cohesion	-0.291	0.050	-0.397	-0.201

활 적응과의 관계는 소속된 집단에서의 적응과 집단응집력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낸 다수의 선행 연구(윤소정 외, 2013; 임성우, 가영희, 2007) 및 군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 간의 정적 관계(원예은, 2019)를 나타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군 집단응집력의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병사들의 사회불안은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군 집단응집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병사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군 집단응집력의 수준은 저하되고 이에 따라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는 개인의 사회불안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 행동,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초래해서 학교 및 직장에서 적응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데(Clark & Wells, 1995; Knappe et al., 2012; Hambrick et al., 2003), 군 병사의 사회불안 또한 병영 업무 수행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해서 군 생활 적응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됨을 유추하게 해준다.

사회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맥락으로서의 군 집단응집력의 관계는(Manning & Fullerton, 1988) 군 병사(이찬미, 2021) 및 병사와 비슷한 연령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이 사회불안 증상을 가질 경우(정문경, 오은주, 2015; 박지연, 2014) 자신이 속한 조직의 타인으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낮게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병사들의 경우 군 구성원들과의 대인관계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지지에 대해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Patterson & Ritts, 1997) 구성원들 간의 밀접한 심리적 교류와 지지로 형성되는 군 집단응집력을 낮게 인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 집단응집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구성원들 간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상호 유대감과 소속감 수준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군 생활 적응을 촉진시킨다는 선행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구승신, 2005; 방상옥, 임신일, 2021).

종합적으로는 군 집단응집력의 부분 매개 효과는 사회불안장애를 가지는 군 병사는 사회불안의 두드러진 행동 특징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외부 자극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편향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과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가져서 군 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심리적 교류, 그에 따른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결속감 결여 등으로 자신이 속한 부대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을 공고히 하지 못하여 군 적응 요소인 직무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등을 낮게 인식할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병사의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이 연구되었지만, 집단생활이라는 환경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심리적 취약성, 그 중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의 다양성이나 심화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Mather et al., 2010). 군 구성원의 정신 장애 발병률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1년 이내 정신 장애 발생률은 9～17%로 높게 나타나, 군 구성원의 적응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되었지만, 정신 장애 치료율은 신체 질병 치료율의 9 ～ 11% 수준에 그쳐서 군에서의 정신 장애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치료가 미흡한 실정이다(Hoge et al., 2005). 사회불안장애는 발병률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만, 대부분의 사회불안에 관한 선행 연구는 참전한 퇴역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알코올 남용과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현역 군인들의 사회불안과 군 적응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Mather et al., 2010), 사회불안장애 군인들은 타인의 주목을 우려하여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적시에 밝히지 못해서 다른 정신 장애 대비 치료율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ther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사회불안으로 인한 군 생활 적응 수준 저하에 대한 개입과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과정에서 군 집단응집력이 매개함을 밝힘으로써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경로가 더욱 명확해졌다. 지금까지 집단응집력은 주로 조직 차원의 변인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었고(Marks et al., 2001), 주로 군의 전투력이나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여겨지면서 연구되었다(MacCount, 1993; Dana, 1995; Evans, 2012; Oliver et al.,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집단응집력을 개인 차원의 심리적 과정으로 규명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Marks et al., 2001; Ilmari, 2018). 본 연구에서는 군 집단응집력이 개인 차원의 맥락으로 세분되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검토되었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메타 연구에서는(방상옥, 임신일, 2021) 외부 지지 체계로부터의 지지와 응원과 같은 개인 외적 보호 요인이 군 생활 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개인 내적 보호 요인 중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군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맥락으로서의 군 집단응집력은 개인 외적 보호 요인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군 집단응집력이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사회불안으로 인해 군 적응 수준이 낮은 병사에게 개입해야 할 변인이 명확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병사들의 군 집단응집력 향상을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과 지지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 증가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도 육군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복무 중인 전체 군 병사들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보직, 병과의 병사들에 대한 표본 수집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군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을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적 특성이 솔직히 드러나기가 어렵고, 사회적 바람직성을 포함한 여러 편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불안 같은 부분은 개인의 심리 내적 요소를 살펴보는 부분이고, 군 집단응집력이나 군 생활 적응 역시 소속된 군부대나 동료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어서 객관적 평가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불안과 군 집단응집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거나, 구조화된 면담 등을 통한 평가의 적용과 같은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군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군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좀 더 다양한 매개 변인들이 탐색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구승신 (2005).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국방정책연구, 21(2), 199-216.

[Koo, S. S. (2005).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in military life of the new generation soldier.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21*(2), 199-216.]

구승신 (2013).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 및 군상담의 현황 연구.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4(1), 1-20.

[Koo, S. S. (2013). Study for problem of soldiers' mental health and the state of military counseling servic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4*(1), 1-20.]

김옥란, 김완일 (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Kim, O. R., & Kim, W. I.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s of 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for military soldi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4), 1627-1646.]

박선하 (1997). 병사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ark, S. H. (1988).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the adaptation of soldiers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박지연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Park, J. Y. (2014).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ter's thesis). Kyoungsang University.]

방상옥, 임신일 (2021).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14(2), 39-61.

[Bang, S. O., & Lim, S. I. (2021).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the military life.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14*(2), 39-61.]

서현봉 (1993). 군대사회의 특수성. 공군본부정훈감실, 73(3), 93-98.

[Seo, H. B. (1993). Speci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communities. *Headquarters of Air Force of ROK*, *73*(3), 93-98.]

엄덕희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11, 31-61.

[Um, D.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of soldiers in the military service.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1*, 31-61.]

원예은 (2019). 군 복무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Won, Y. E. (2019).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among military soldier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oup cohesion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ungshin Woman's University.]

육군본부 (2007). 자살사고 예방 추진지침. 육군본부.

[Headquarters of Army of ROK (2007).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military personnels' suicides.* Headquarters of Army of ROK.]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체계와 학교응집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1(2), 185-207.

[Yune, S. Y., Ju, J. H., & Lee, E. Y. (2013).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ystems, class cohesiveness, and school adaptation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1*(2), 185-207.]

이종환 (2008). SPSS를 이용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의 이해와 적용. 경기: 공동체.

[Lee, J. W. (2008).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survey methods 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Kyounggi: Community.]

이찬미 (2021). 사회불안과 군 적응의 관계: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군 생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Lee, C. M.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Military Adaptati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Military Life Stress through Social Support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임성우, 가영희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사회 적응력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1), 29-39.

[Lim, S. W., & Ka, Y.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hesion, social adaptation, and anxiety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5*(1), 29-39.]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송영우 (2016). 군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 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1-25.

[Lim, J. I., Lee, S. R., Shin, J. H., Park, I. J., & Song, Y. W. (2016). Relationships of role differentiation, cohesion, team member satisfaction and perceived group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barrakc's structure and squad leader's initiating structure.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9*(1), 1-25.]

임진 (2015). 병사의 사회불안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Lim, J. (2015).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anxiety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mong soldiers: the mediating effect of soldiers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정문경, 오은주, (2015).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와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35-361.

[Jeong M. K., & Oh, E. J.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suppress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social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7), 335-361.]

최혜란, 박숙희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0(3), 1743-1756.

[Choi, H. R., & Park, S. H. (2009). Research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 influencing the military adjustment of Korean soldi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3), 1743-1756.]

Ahronson, A., & Cameron, J. E. (2007).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group cohesion in a military sample. *Military Psychology, 19*(1), 9-25.

Baum, P. M. (1952). *Soldier Group and Negro Soldier*. California University Press, 50-58.

Calsyn, R. J., Winter, J. P., & Burger, G.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 test of competing casual models. *Adolescence, 40*(157), 103-113.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Clark, D. M., & McVanus, F.(Eds.), *Biological Psychiatry* (pp. 92-100). Information processing in social phobia.

Dana, Y. (1995). *A study of cohesion and other factors of major influence on soldiers' and unit effectiveness.* United State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Evans, C. R., & Dion, K. L. (2012). Group cohesion and performance. *A Mega-Analysis. Small Group Research, 43*(6), 690-701.

Festinger, L. (1950).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Spychological Review, 57*(5), 271-282.

Grant, B. F., Hasin, D. S., Blance, C., Stinson. F. S., Chou, S. P., Goldstein, R., B., Dawson, D. A., Smith, S., Saha, T. D., & Huang, B. (2005). The epidemiology of social anxiety disorder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6*(11), 1351-1361.

Griffith, J. (1988). Measurement of Group cohesion in U. S. army uni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9*(2), 149-171.

Hambrick, J. P., Turk, C. L., Heimberg, R. G., Schneiner, F. R., & Liebowitz, M. R. (2003). The Experience of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social anxiety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18*(1), 46-50.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Guilford Press.

Henderson, W. D. (1985). *Cohesion. the human element in combat. Leadership and societal influence in the armies of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North Vietnam, and Israel.*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Hoge, C. W., Toboni, H. E., Messer, S. C., Bell, N., Amoroso, P., & Orman, M. (2005). The occupational burden of mental disorders in the U. S. military; psychiatric hospitalizations, involuntary separations, and disa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3), 585-591.

Hoyle, R. H., & Crawford, A. M. (1994). Use of individual-level data to investigation group phenomena; issues and strategies. *Small Group Research, 25*(4), 464-485.

Ilmari, K. (2018). Broadening the perspective on military cohesion. *Armed Forces and Society, 16*(1), 1-16.

Iancu, I., Levin, J., Hermesh, H., Dannon, P., Poreh, A., Ben-Yehuda, Y., Kaplan, Z., Marom, S., & Kotler, M. (2006). Social phobia symptoms: prevalence, sociodemographic correlates, and overlap with specific phobia symptoms. *Compr Psychiatry, 47*(5), 399-405.

Janowitz, M., & Little, R. (1965). *Sociology and the military establishment.* Russel Stage Foundation, New York.

Jones, Seddon, Fear, Mcallister, Wessely, & Greenberg (2012). Leadership, cohesion, morale, and the mental health of UK armed forces in Afghanistan. *Psychiatry, 75*(1), 49-59.

Kessler, Ronald C., Chiu, W, T., Demler, O., Walters, & Ellen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617-620.

Kirke, C. (2010). Military cohesion, culture and social psychology. *Defense & Security Analysis, 26*(2), 143-159.

Knappe, S., Beesdo-Baum, K., Fehm, L., Lieb, R., & Wittchen, H. (2012). Characteriz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al phobia. *J. Peers. Assess, 26*(5), 608-616.

Le Foll, D., Rascle, O., Marchal, M., & Cabagno, G. (2019). Preceived motivational climate and unit cohesion: The case of French soliders in training. *Military Psychology, 31*(3), 233-240.

MacCount, R. J. (1993). *Unit cohesion and military performance.* In Sexual Orientation and U. S. Military Personnle Policy, Policy Options and Assessment, 283-331. Santa Monica, CA: RAND.

Manning, F., & Fullerton, T. (1988). Health and well-being in highly cohesive units of the U.S. Arm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6), 503-519.

Marks, M. A., Mathieu, J. E., & Jacarro, S. J. (2001). A temporally based framework and taxonomy of team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v, 26*(3), 356-376.

Mather, A., Stein, M., & Sareen, J. (2010). Social anxiety disorder and social fears in the Canadian military: prevalence, comorbidity, impairment, and treatment-seeking.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4*(14), 887-893.

Ollendick, T. H., & Hirshfeld-Becker, D. R. (2002).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social anxiety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51*(1), 44-58.

Oliver, L. W., Harman, J., Hoover, E., Hayes, S. M., & Pandhi, N. A. (1999). A quantitative integration of the military cohesion literature.

Military Psychology, 11(1), 57-83.

Patterson, M., & Ritts, V. (1997) Social and communicative anxiety; a review and meta-analysis.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 263-303.

Shields, M. (2004) *Social anxiety disorder-beyond shyness.* Heather reports 15 (supple.), 545-561.

Siebold, G. L., & Kelly, D. R. (1988). *Development of the combat platoon cohesion questionnaire,* Axedxandria, Va.: U. 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technical report 817.

Stein, M. B., & Gorman, J. M. (2001). Unmasking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y and Neuroscience, 26*(3), 185-189.

Stein M. B., M. D., & M. P. H. (2006). An epidemiologic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 (Suppl. 12), 53-58.

Sto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R. M. (1949). *The American soldiers: Adjustment, during army life.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in World War II.*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ng, H., Zhang, R., Chen, Y., Wang, H., Zhang, Y., Gan, J., Zhang, L., & Tan, Q. (2014). Social anxiety disorder in the Chinese military; prevalence, comorbidities, impairment, and treatment-seeking. *Psychiatry Research, 220*(3), 903-908.

William, Brown, Bray, Anderson, Rae, & Adler (2016). Unit cohesion,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of soldiers in basic combat training. *Mil Psychol, 28*(4), 241-250.

Williams, J. M., & Hacker, C. M. (1982). Causal relationships among cohesi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women's intercollegiate field hockey team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4), 324-337.

Yalom, 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Zaccaro, S. J. (1991). Nonequivalent associations between forms of cohesiveness and group-related outcomes: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3), 387-400.

원고 접수일 : 2021. 12. 21.
수정원고 접수일 : 2022. 04. 07.
게재 결정일 : 2022. 04. 12.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2, Vol. 23, No. 2, 167-182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Group Cohe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oldiers' Social Anxiety and Military Life Adaptation

Kyounghee Bark[1] · Han Ik Jo[2]

[1]Ph.D, Department of Learning Science, Hanyang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Group Cohesion is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Military Life Adaptation of Korean soldiers. For this purpose, 231 soldiers serving in the army unit in K province were survey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Anxiety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Military Group cohesion and Military Life Adaptation respectively, and Military Group Cohes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Military Life Adap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Group Cohesion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oldiers' Social Anxiety and Military Life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 Soldiers, Social Anxiety, Military Group Cohesion, Military Life Adaptation